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



나눔

2017 AUTUMN Vol.372

“우리는 참다운 공동체로써
진정한 형제애를 나누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CONTENTS

카리타스 메시지	03
회장 박경근 아우구스티노	
카리타스 이정표	0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17년도 중점추진사업 일정안내 및 참여 사회복지시설 소개	
카리타스와 사회복지	07
CS(Caritas Seoul) 자살예방 & 생명존중 문화만들기 알아보기①	
카리타스 이야기	11
함께 나누고 싶은 카리타스 이야기	
카리타스 공동체	14
서울가톨릭의료복지협의회	
카리타스 살림살이	15
2017년 상반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후원금·품 결산보고	
카리타스 나눔살이	22
가톨릭정보문화센터 중국어 통역봉사 손영일 사도요한	
Yes, I Do	25
DO CAT과 함께하는 사회교리	



Mission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합니다.

Vision

-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사회복지 기관
- 본당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교구 사회복지회
- 미래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전문 사회복지 기관
-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 기관

Caritas

사랑(愛), 애덕(愛德), 자선(慈善)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계명인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2017 AUTUMN <나눔+>

발행일	2017년 9월 27일
발행인	유경춘
발행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전화	02-776-1314
팩스	02-754-5636
홈페이지	www.caritasseoul.or.kr/bokji
기획 편집	교육 홍보팀 송새암 02-727-2256
디자인	디자인수다 02-3446-5202
인쇄	연합프로세스 02-2272-3830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신앙의 기쁨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박경근 아우구스티노

미세 먼지로 가리워졌던 하늘이 제 빛깔을 내는 가을입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보며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숨씨를 알리네”(시편 19,2)라는 성경 말씀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되는 시기인 듯합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 하느님의 영광을 그리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하느님의 위로와 축복이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가득한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소식지’ 지면을 통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활동에 함께 하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인사이동에 의해 새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로 오게 된 박경근(아우구스티노)신부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9월 ‘순교자 성월’을 지내며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이루었던 신앙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한국의 신앙 선조들이 이루었던 초기의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생겨난 초기 교회 공동체는 모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사도 4,32-35; 7,1-7) 그리고 교회사의 증언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안정된 이들과 만이 모였기에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도 공동체의 일원, 곧 형제·자매로서 받아들이고 그들에 대한 배려와 도움, 사랑을 나누었기에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고, 그리스도교 신앙인이 참 신앙인일 수 있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형제적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순교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과 동일시했던 이들, 곧 굶주린 이들, 목마른 이들, 헐벗은 이들, 병자들, 감옥에 갇힌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하느님 사랑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마태 25,31-46). 그리고 그 사랑이 참된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를 일깨우며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신앙의 기쁨을 여기에서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선물이며 은사라는 것을 헤아리게 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마태 25,31-46)은 우리에게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그 말씀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주님께서 사실은 먼저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 분이었던 것을 헤아리게 합니다(마르 10,45 참조). 그럼으로써 우리는 형제적 사랑, 곧 봉사와 나눔을 통해 우리를 위해 먼저 봉사하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깨닫고 만나고 그분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고 믿음 안에서 희망한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청하는 가장 큰 선물을 이미 여기에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형제적 사랑은 그렇기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이들, 곧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활동에 함께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과 하나 되는 기쁨과 위안이 함께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안에 함께 하는 시설 및 기관 등의 현장들을 방문할 때마다 사람의 선한 의지가 하느님의 역사와 만남으로써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와 우리의 선의가 미력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선의가 모일 때, 그리고 하느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맺고 또한 지속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표지·성사적 표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더불어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랑과 나눔이 도움을 주고 받는 우리와 상대만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더 나아가 시공을 거슬러 함께 하는 이들에게도 위로와 희망,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차게 사랑의 여정을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며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때로는 분주하고 힘듦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깨닫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주시길, 그럼으로써 더 큰 보람과 위안 안에서 살아가는 가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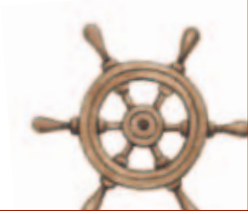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17년도 중점추진사업

일정안내 및 참여 사회복지시설 소개



영적 돌봄 리더십 교육 사업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육체만을 돌보는 것은 인간의 완전한 만족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는 모두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영적 돌봄 리더십은 이를 지향하는 리더십입니다. 영적 돌봄 리더십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 기관의 리더들은 종사자들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세심히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

- 제 2차 SCLP(정체성 보수과정)
2017.07.18(화) 10시~17시 가톨릭회관
- 제 3차 SCLP(정체성 보수과정)
2017.10.17(화) 10시~17시 가톨릭회관

교육 대상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시설 사회복지사

CS(Caritas Seoul) 영성에 기반한 노인 통합 사례관리 사업



사회적약자인 어르신에게 우리는 어떠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이 처한 환경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지지해 주는 것, 그리고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 저희는 이것이 존엄한 인간에게 적합한 가톨릭형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반기 교육

- 전인적 돌봄 해결중심교육
- 전인적 돌봄 사목교육

교육 대상

- 가톨릭노인복지협의회 소속 사회복지사

참여 기관

- 금천노인종합복지관 / 804-4058 / 15영등포-금천
- 동작노인종합복지관 / 823-0064 / 14 동작
-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 481-2217 / 9강동
- 성동노인종합복지관 / 2298-5117 / 8성동-광진

CS(Caritas Seoul)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



CS(Caritas Seoul)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지역 사회 내 취약계층을 위해 종합복지관을 거점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자신이 존엄한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역 주민들은 생명존중 활동가로 육성하여 서로 돌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하반기 교육

- 영적민감성향상교육
- 생명존중활동가양성교육(개방형)
- 죽음의이해
- CPE

참여 기관

-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 사업기획 및 총괄 / 2658-6521 / 17강서
- 동작종합복지관 / 교육담당 / 814-8114 / 소속지구: 14동작
- 상계종합복지관 / 집단프로그램 담당 / 951-9930 / 5노원
- 신당종합사회복지관 / 지역캠페인 및 홍보 담당 / 2231-1876 / 1중구-용산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 사례관리, 생명존중활동가관리 담당 / 2235-4000 / 1중구-용산
- 중곡종합사회복지관 / 이번년도부터 신규참여 / 3436-4316 / 8성동-광진
- 한빛종합사회복지관 / 추적조사 담당 / 2690-8762 / 18양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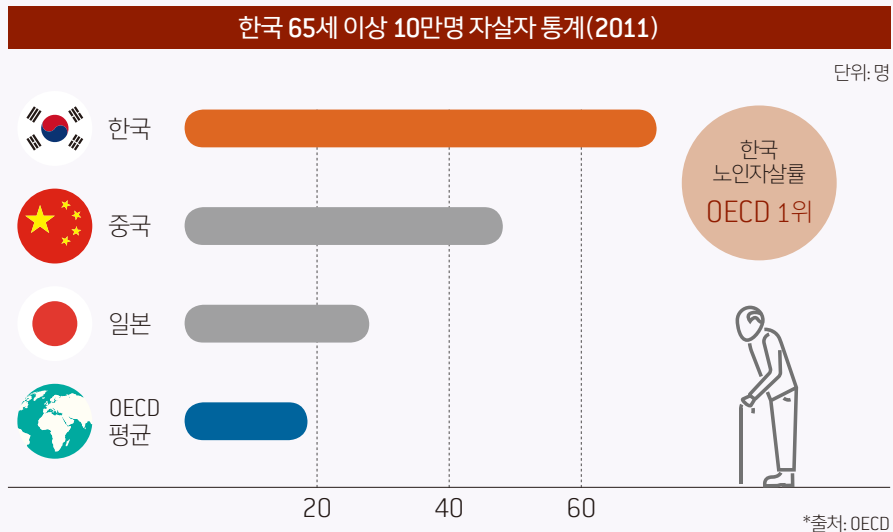


CS^(Caritas Seoul) 자살예방 & 생명존중 문화만들기 알아보기①

이번 호부터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중점추진사업인 'CS(Caritas Seoul) 자살예방 & 생명존중 문화만들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2년째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노인 자살률은 54.8명으로 OECD 평균 18.4명의 무려 세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관심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가톨릭교회 내에서도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저버리는 자살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대처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좀더 전문적, 조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촉발시킨 것이 바로 ‘영구임대아파트 연쇄자살 사건’이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연쇄자살 사건

2012년 7월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100일동안 6명이 연쇄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주목받음. 수년간 가중된 경제난과 박탈감 등이 이들의 삶을 무력화 하였으나 자살한 6명 가운데 단 한명도 자치구나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나 상담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자살예방 사회보장체계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함. 이들 중 절반은 노인이었음.

(2012.08.27 한겨레 기사발췌)



지난 2013년 6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7개 종합복지관(등촌7, 동작, 상계, 신당, 유락,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위 사건에서의 ‘연쇄자살’이라는 극단적 양상에서 드러나듯 우리 사회 속 위험수위까지 올라온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자살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종합복지관은 이러한 생명운동의 거점이 되기에 좋은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 내 생명운동기관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자살예방센터도 생명수호를 위해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CS생명존중문화만들기 사업이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어르신 대상의 우울증 예방프로그램, 자살예방 심포지엄, 자살예방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수호를 위한 활동을 개진해 왔습니다. ‘CS(Caritas Seoul) 자살예방 & 생명존중 문화만들기’가 3년째 되던 해에는 성과보고회도 개최하여 가톨릭교회의 자살예방 및 생명수호 운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3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만들기 사업을 시행해온 결과 지역사회 생명 존중 활동가의 저변이 확대되고 자살에 대한 민감성이 증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인 2017년 4월에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아산복지재단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CS(Caritas Seoul) 자살예방 & 생명존중 문화만들기’는 무엇보다 사회취약계층의 전인적 돌봄을 위한 접근,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영적 민감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기조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사는 신체적, 물질적인 결핍을 채워주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돌봄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는 간접적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CS(Caritas Seoul)형 자살예방은 자살고위험군에 대하여 영적인 부분까지도 살피고, 인간존재에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의미를 주는 이러한 ‘전인적 돌봄’의 접근은 가톨릭적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흘 전에도 인근 아파트 10층에서 누가 뛰어내렸나 봐요. 경찰이 오고 국과수도 왔어요. ‘누군가’가 도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곁에 ‘누군가’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저도 그 ‘누군가’가 되고 싶어서 교육을 받았어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주최한 ‘CS(Caritas Seoul) 생명 존중 활동가’ 교육을 받고 난 서승호(루치아노, 64)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듣고 나니 이제야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개념이 들어온다”며 “본당(서울 발산동본당)에서 생명수호 회원으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가톨릭평화신문 발췌)

2017년에는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와 영성에 대한 고찰, 전인적 돌봄의 실천교육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영적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렇게 양성된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활동가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전인적 돌봄지원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2017년도 아산재단 선정사업 안내

교육명	내용
생명존중활동가 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
	자살에 대한 이해
	우울증 이해
	경청의 이해
	영성의 이해
	역할극 및 나눔활동
영적민감성 향상교육	전인적 돌봄의 필요성 이해
	영적 돌봄 이해
	자기 자신이 대화와 소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공감적 반영적 경청과 대화법
임상사목교육(CPE)	자기성찰: 자기돌봄능력향상
	명상: 자기이해
	가계도분석을 통한 이해
	대화록을 통해 자기인식을 넓히고 공감적 경청의 대화법 익히기
	그룹관계 세미나: 그룹만의 역동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 익히기
영성돌봄 실천	CPE 리더과정수료자 수퍼비전 활동
	전인적돌봄체계를 적용한 사례관리모델 개발

함께 나누고 싶은 카리타스 이야기

20170629

도티기념병원 35주년 감사 및 종결미사

[강론]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주교 유경춘



가난한 사람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35년전 한국사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장 서러울 때가 바로 몸이 아플 때 인데, 몸이 아프면서도 치료가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이들에게 도티기념병원이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지난 35년동안 이 병원을 통해 진료받은 환자가 줄잡아 300만명이나 됩니다. 외래환자가 215만여명, 입원 및 수술환자가 80만 5천여명,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진료혜택을 입은 외국인 환자도 총 5만 2천 8백여명, 국적으로 치면 99개의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도티기념병원이라는 천사를 시켜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아픔과 어려운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도와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자매여러분, 그리고 도티기념병원을 사랑하는 도티기념병원 가족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디모테오 2서에서 들은 바오로 사도의 고백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사도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리기를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의로움의 화환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바오로사도의 말씀을 특별히 마리아 수도회의 모든 수녀님들 그리고 35년동안 수녀님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오신 도티기념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랜 봉사자들과 후원자여러분들께 그대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자녀들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할 만큼 했으니 미안해하지 말아라’ 하고 말입니다.

형제자매여러분, 사랑하는 도티기념병원 가족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 스스로 병원에 가서 치료

할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도티기념병원의 폐업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픈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두가지의 차원을 지니는 듯합니다. 첫째는, 국가나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이 더 이상 없도록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란 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가 열심히 한다 해도 다 하지 못하는 구석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불법체류외국인의 의료지원을 국가가 직접 나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형제자매여러분, 도티기념병원은 사랑의 학교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병원에서 조건없는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아무 조건없이 치료받고,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또 그 사랑을 다시 나누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 사랑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나라와 세계어려운 곳곳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자비하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7083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이취임미사

[강론]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주교 유경춘



그동안 역대 여러 회장신부님들께서 쌓아놓으신 발전의 토대 위에서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는 가톨릭사회복지회의 사회복지 정체성을 좀더 확고히 하기 위해 특별히 더욱 노력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모든 구성원들이 단순히 복지사업의 전문가 또는 활동가로서 뿐만 아니라 각자가 신앙의 관점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지활동이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는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총무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종교사회복지 협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교구사회복지회가 교회 내외의 여러 기관과 세상과 연대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사제가 다 하느님 복음선포에 일꾼들이고 또 사랑실천의 증거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할 소명을 모든 사제들이 안

고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꾼들이 자기에게 일을 맡긴 주인으로부터 평가받고 상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기쁜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신부님의 노고에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사회가톨릭사회복지회의 일을 맡겨주신 주님께서 정성하신 신부님의 모든 수고를 후히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임하시는 정성하신 신부님의 뒤를 이어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새롭게 이끄시려 제 10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박경근 아우구스티노 신부님께서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더욱 발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박경근 아우구스티노 신부님께서 이미 지난 일년 간 사회사목국 부국장과 정의평화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일하시면서 사회복지 활동의 근간인 정의와 사랑실천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국내의 모든 신부님들과 함께 나눴으셨기에 그런 점에서 더욱 성숙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이끌어주시 수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우리가 알고있다시피 인간의 존엄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열외없이 다 소중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고백이 가톨릭사회복지의 기초입니다. 그러기에 인간다운 존중을 보장받지 못하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원래의 그들의 몫을, 원래의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 되돌려주려는 실천이 가톨릭사회복지의 다양한 노력들이고 활동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톨릭사회복지의 핵심적 가치인 카리타스는 우리 교구 사회사목활동의 다른 위원회들의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결국 모든 위원회의 활동들이 다 카리타스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큰 토대 위에 우리 교구 사회사목의 13개 위원회의 활동들이 모두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빈민사목위원회가 하는 일은 빈민 카리타스 활동일 것이며, 노동사목위원회가 하는 일은 노동카리타스 활동일 것입니다. 이주사목위원회의 이주카리타스, 환경사목위원회의 환경자연카리타스, 우리농의 농촌농민카리타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한마음카리타스, 노인복지위원회의 노인카리타스, 병원사목위원회의 병든이를 돌보는 카리타스,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돌보는 단종독 카프 성모병원의 카리타스,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돌보는 교정사목위원회의 교정카리타스, 경찰사목위원회 또한 넓은 의미로 카리타스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교구 사회사목위원회의 모든 활동들은 가톨릭 사회복지의 또다른 구체적인 단면이고 활동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회복지회 신부님들 뿐만 아니라 사회사목국 위원회의 다른 신부님들이 함께 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평화위원회, 사회사목국에서 사회사목의 전모를 국장신부님과 함께 지난 일년간 돌보아오신 박경근 신부님께서 서울가톨릭사회

복지회 산하 260여개의 시설과 산하직원들의 그 노력들을 잘 엮어내고 이끌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이 미사중에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부님과 함께 새로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또하나의 장을 열어가길 수 있도록 주님께 겸손되어 지혜를 청합시다.

20170901

서울특별시립 은혜로운집 설립 10주년 감사미사 축하

[강론]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주교 유경춘



은혜로운집 설립 10주년을 축하해주시려고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여러 내외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주교회에 사회복지법인인 이 시설을 수탁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첫째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버림받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그분들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단순히 이분들을 돕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하려는 뜻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행복이고, 제자로서의 자아실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은혜로운집 설립 10주년을 자축하며 되묻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르게 돕고 있는가? 첫 번째 말은 목적, 이유가 그분들을 돕고 행복하게 해드리는데 있으니, 그것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가를 묻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사랑실천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실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말할 수 있는가?를 더불어 묻게 됩니다. 고민에 대한 답이 완결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큰 목표를 향해 우리가 열심히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100% 달성되었다고 아무도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이 바라시는 그만큼까지 더 충실히 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성찰에 대해 오늘 우리가 들은 바오로사도의 데살로니카 1서 말씀과 마태오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오로사도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더욱 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하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코 모르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론을 모른다고 보다는 아는 바를 정말로 실천하고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짜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는 바를 참으로 실천하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잡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오로사도가 자기 아내를 거룩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은혜로운집에서는 여기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함으로써 우리가 하느님대전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형제자매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집에 운영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시설을 책임맡고 있는 한, 이일은 그냥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느님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그분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주님의 보복을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설립1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그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의 선 자리를 되짚어보고 성찰해보는데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주년의 주인공은 법인을 비롯해서 이 시설의 임직원들일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살피고, 어떤 것을 보완해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다짐하고 그런 다짐을 우리를 관심있게 돌보아 주시고 바라보아 주시는 주변 은인들에게 보여드리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10주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들은 복음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종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던 슬기로운 처녀 다섯과 등만 가지고 있었을 뿐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 이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편은 물을 것도 없이 당연히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일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은혜로운 집의 하루하루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써 깨어 기름을 준비하는 중요한 순간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은혜로운집을 맡고 있는 데(등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등만 가지고 있으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들과도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으로부터 사랑 실천의 도구가 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며, 우리 하루하루가 그런 소명을 기억하는 깨어있음의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감사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곧 은혜로운집 설립 10주



은혜로운집

은혜로운집(관장: 김한식 도마 수사)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의료복지분야 수탁시설로, 2007년에 개원하였습니다. 이후 정신장애인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존엄한 인격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소 (03428)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http://www.grace.seoul.kr/>
 TEL) 3156-6400 / FAX) 3156-6464

년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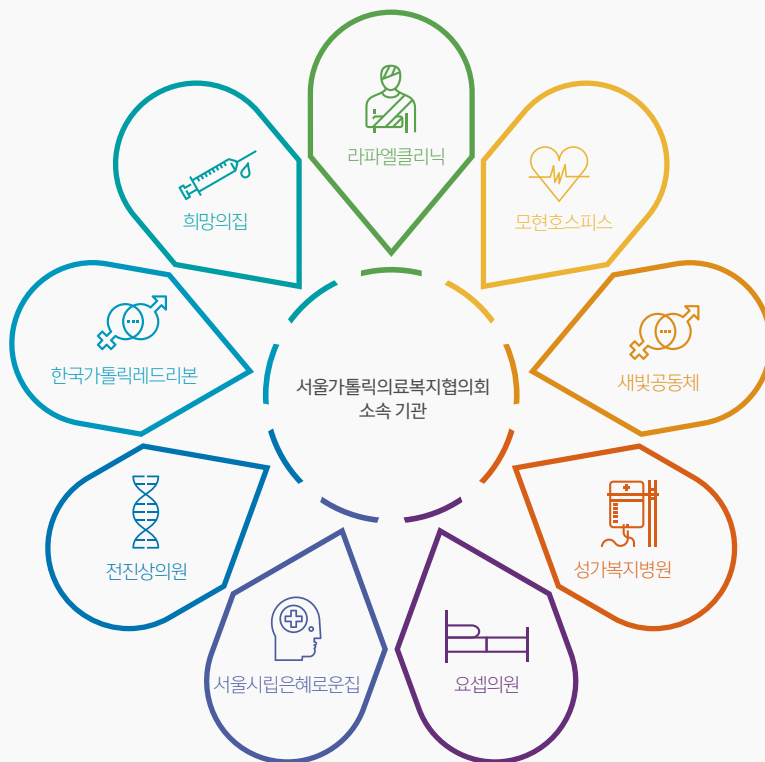
이 자리를 빌어 은혜로운집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소임을 다해주고 계시는 시설장 김한식 도마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여러분들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모든 가족들의 이름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휘감독의 실무를 맡으신 회장 박경근 신부님, 부회장 조용철 신부님, 담당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은혜로운집의 모든 봉사자들과 후원자들도 교구장이신 염수정 추기경님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강복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늘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은평의마을 원장 이향배 수녀님, 영성담당 송락 신부님, 평화로운집 원장 유진선 수녀님,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이명목 회장님, 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구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 정종기 회장님, 그리고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의료복지협의회 여러 시설장님들과 은평 정신보건네트워크의 여러 시설장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은혜로운집이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형제자매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로운집이 하느님의 은혜 그 자체임을 깨닫고 우리도 소임을 깨어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겸손되이 간구합니다. ✱

서울가톨릭의료복지협의회

서울가톨릭의료복지협의회는 예수님의 사랑실천 정신중의 한 부분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9-37)을 공유하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함께 하고 있는 9개의 의료복지시설 공동체입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가르침에 따라 저소득지역 주민, 노숙인, 알코올의존자, 에이즈감염인, 호스피스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통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돌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협의회는 서로 다른 의료영역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기위한 노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료대상	시설명	구분	운영
이주노동자환우	라파엘클리닉	등록	사회복지법인 라파엘클리닉
말기암환우	모현호스피스	등록	재단법인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에이즈환우	새빛공동체	등록	재단법인 성골롬반외방수녀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 노숙인환우	성가복지병원	등록	재단법인 서울성가소비녀회
	요셉의원	직영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정신질환환우	서울시립은혜로운집	수탁	
말기암환우	전진상의원	등록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에이즈환우	한국가톨릭레드리본	등록	사단법인 한국가톨릭레드리본
결핵환우	희망의집	직영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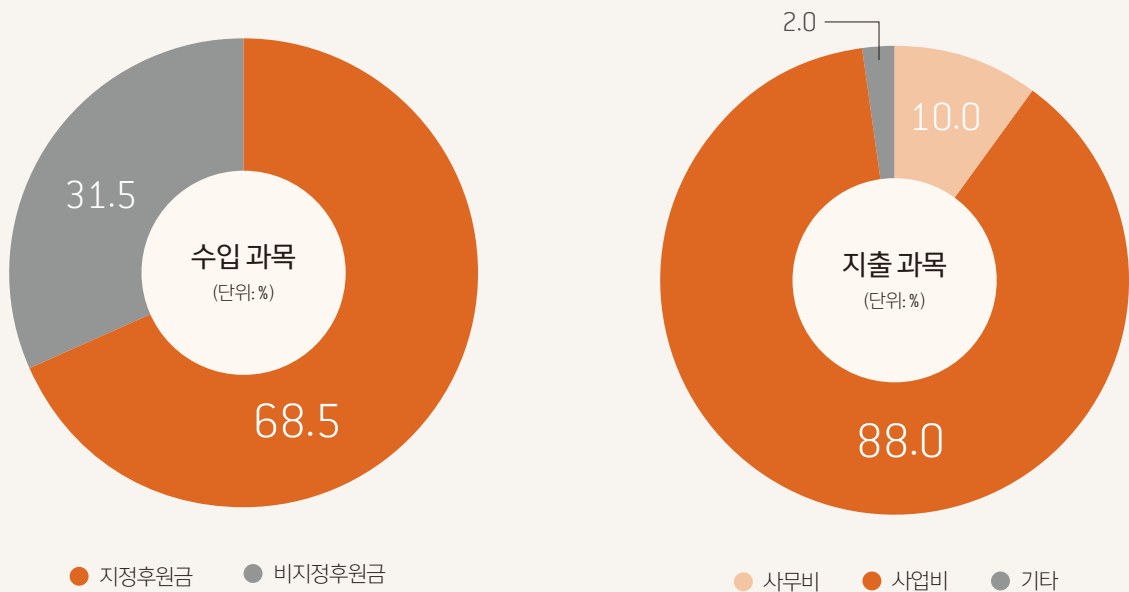
더욱 자세한 정보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bokji) 내 시설소개 및 연락처보기 메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서울가톨릭의료복지협의회 회장 Br.김한식 도마(은혜로운집)

2017년 상반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후원금·품 결산보고

2017 상반기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

(2017.1.1~6.30)



구분	수입 과목	금액	구분	지출 과목	금액
지정후원금	한마음한몸지원금	510,000,000	사무비	사무비 및 운영비	61,297,370
	장학사업후원금	75,234,004		본당사회복지사업비	55,800,000
	시설지원지정기탁	49,432,400		지역사회보호및예방	172,985,486
	공모사업 후원금	50,736,090		분야별 특화사업	20,806,700
	기타지정후원	34,614,891		직영수탁시설운영지원사업비	4,140,000
비지정후원금	헌배기부후원	12,050,000	사업비	사회복지지원사업	72,095,400
	한끼100원 후원	18,445,140		사회복지분야별역량강화사업	16,800,000
	온라인 후원	2,870,156		교육 및 연구기획사업비	32,501,361
	CMS후원	149,029,200		홍보출판 사업비	14,417,210
	기타 개인후원금	148,544,107		모금 사업비	40,869,076
				자원봉사사업비	19,993,000
				시설전출금	86,605,133
			기타	반환금 등	10,451,708
계		1,050,955,988	계		608,762,444

2017년 상반기 후원품 배분내역

1.24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3)	마리스타지역아동센터(25)	라우인터내셔널(마스크팩)	안젤라의집(5)
한국인삼공사(홍삼청, 홍삼원)	동선동청소년공부방(3)	마음터 지역아동센터(12)	잡화	마고네공부방(10)
식품	강서구직업재활센터(13)	방화동 나눔의집(10)	로사리아공동생활가정(1)	마음터지역아동센터(10)
늘푸른집(6)	성북푸드마켓(8)	성빈센트 청소년회(120)	다향공동생활가정(1)	사랑손보호작업장(10)
맑음터(2)	중곡종합사회복지관(8)	새솔지역아동센터(35)	루치아공동생활가정(1)	살레시오광명나눔의집(10)
화곡성모공동생활가정(1)	중구장애인복지관(2)	셋마루지역아동센터(26)	다사랑공동생활가정(1)	살레시오방화동나눔의집(20)
헬렌켈러의집주간보호센터(5)	씨튼해바라기의집(3)	안젤라의집(6)	화해의집심자리(1)	살레시오신월3동나눔의집(6)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1)	등촌성모어린이집(2)	전진상지역아동센터(63)	마로니에공동생활가정(1)	살레시오양천나눔의집(36)
맑음터(5)	신림성모데이케어센터(2)	희망의집지역아동센터(76)	두레네공동생활가정(1)	새솔공부방(10)
행복을만드는집(2)	송화어린이집(1)	4.4	비둘기주간보호시설(1)	서울성모원(5)
화곡성모공동생활가정(1)	2.21	화목복지협동조합(봉헌컵초)	씨튼해바라기의집(2)	은평의마을(100)
헬렌켈러의집주간보호센터(3)	이브자리(이불)	잡화	동작종합사회복지관(1)	중구장애인복지관(30)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9)	잡화	두레네공동생활가정(1)	신림성모데이케어센터(1)	성모의집(5)
여성이집(3)	꿈터새터민지원센터(5)	행복을만드는집(1)	해뜨는집(1)	송화어린이집(15)
비둘기주간보호시설(5)	등촌7종합사회복지관(2)	고덕양로원(2)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2)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10)
햇빛자리(4)	마로니에공동생활가정(2)	늘푸른집(3)	신당동성당 데이케어센터(2)	해뜨는집(10)
사랑손보호작업장(7)	성심이집지역아동센터(5)	서울성모원(1)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2)	혜화동성당데이케어센터(20)
송파위더스(5)	행운동성당데이케어센터(6)	상계동성당데이케어센터(1)	나자렛성가정공동체(1)	6.9
비둘기보호작업장(5)	2.27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1)	상계동성당데이케어센터(1)	노원스포츠타(아디다스의류 및 신발)
남산실버복지센터(2)	한국미즈노(의류 및 신발)	4.4	4.24	의류
강서구직업재활센터(25)	의류	리뉴얼(청바지)	(주)베스타일인터내셔널(마사지오일)	셋별자리(1)
등촌7종합사회복지관(3)	베들레헬어린이집(1)	의류	잡화	마인하우스(2)
1.31	동작종합사회복지관(1)	나자렛성가정공동체(1)	헬렌켈러의집주간보호센터(10)	한빛데이케어센터(1)
리뉴얼(청바지)	동작종합사회복지관(1)	상계동성당데이케어센터(5)	서울성모원(3)	새솔공부방(1)
의류	서울시여성보호센터(2)	서울시여성보호센터(3)	미리암이주여성 센터(2)	송파위더스(1)
강서구직업재활센터(1)	서울성모원(1)	성동노인종합복지관(3)	행운동성당데이케어센터(10)	은평의마을(1)
동선동청소년공부방(1)	3.21	강서구직업재활센터(2)	은평의마을(75)	마음자리(2)
베들레헬어린이집(2)	올리브랜드(크리스마스장식)	4.5	신림성모데이케어센터(20)	
비둘기보호작업장(3)	잡화	(주)대길퍼시픽(락앤락)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10)	
은평의마을(2)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14)	잡화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20)	
은혜로운집(3)	등촌성모어린이집(5)	로사리아공동생활가정(5)	4.24	
송화어린이집(2)	신림성모데이케어센터(3)	다향공동생활가정(5)	강남성모병원(수건)	
헬렌켈러의집주간보호센터(1)	신당동성당데이케어센터(9)	루치아공동생활가정(1)	잡화	
2.7	은평의마을(27)	다사랑공동생활가정(5)	헬렌켈러의집주간보호센터(50)	
다산FCN마리안느(임부복)	3.30	화해의집 심자리(5)	두레네공동생활가정(30)	
의류	로젠택배(무적화물)	마로니에공동생활가정(5)	서울성모원(30)	
신당종합사회복지관(5)	잡화	두레네공동생활가정(5)	나눔의목상회(100)	
송화어린이집(1)	살레시오나눔의집(2)	비둘기주간보호시설(15)	미리암이주여성센터(40)	
2.16	서울시여성보호센터(2)	씨튼해바라기의집(5)	행운동성당데이케어센터(30)	
성보크리미(주방용품)	행운동성당데이케어센터(1)	고덕양로원(40)	나자렛성가정공동체(30)	
잡화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2)	동작종합사회복지관(10)	가톨릭발달장애인부모회(100)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4)	은평의마을(3)	신림성모데이케어센터(20)	은평의마을(115)	
나자렛성가정공동체(1)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2)	해뜨는집(6)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30)	
은혜로운집(11)	4.3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15)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30)	
비둘기주간보호시설(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바상교재)	신당동성당 데이케어센터(5)	5.26	
미리암이주여성 센터(7)	도서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5)	앰큐네트웍스(프링글스)	
비둘기보호작업장(5)	마가렛지역아동센터(34)	나자렛성가정공동체(10)	식품	
은평의마을(25)	마고네공부방(18)	4.5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10)	



결연후원

사회복지시설, 또는 개인을 임의로 지정하여 후원하는 것을 결연후원이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개인, 기업, 단체 특성에 맞추어 더욱 의미있는 후원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결연후원 명단

- 명동성당 사회사목분과:
법인 산하 20개 사회복지시설에 매월 각 30만원 후원
- 서울성모병원 성모자선회:
법인 산하 8개 사회복지시설에 2천9백32만5천원 후원
- 이선희카타리나: 3년간 2가정에 매월 각 25만원 후원
- 옥수동성당 청년회:
법인 산하 1개 사회복지시설에 66만 6천원 후원
- 평화방송 아름다운사랑 아름다운나눔:
법인 산하 11개 사회복지시설에 1천7백30여만원 후원



유산후원

전 생애를 통한 고귀한 나눔인 유산후원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그 뜻을 받아 함께 하겠습니다. 사전, 또는 사후에 내가 가진 재산을 후원하는 '유산후원'을 통해 모든 이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그래서 더욱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유산후원 명단

- 김** 데레사: 1천 2백만원 후원
- 현화진 카타리나: 1억 5천만원 후원



기업후원

서울지역 내 약 260여개 사회복지시설들과 함께 하고 있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CSR)에 파트너로 동행 합니다. 전문적이고도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가톨릭 사회복지법인으로써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기업후원 명단

- 경동제약: 5천만원 후원
- 돌코리아: 1천만원 후원
- 두산그룹: 5천만원 후원



단체후원

마음 맞는 다수가 뜻을 모아 단체명으로 후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김은 각기 다르지만 이 모두가 인간으로써 존엄하듯, 하나의 뜻을 위해 모은 사랑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단체후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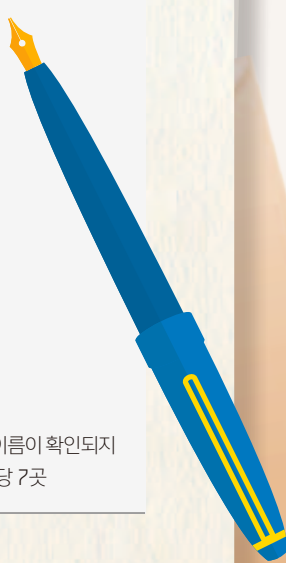
- 가톨릭중등교육자회: 약 447만원 후원
- 남산로터리클럽: 4천만원 후원
- 논현성모어린이집 원아들: 약 71만원 후원
- 목동어린이집 교직원: 83만원 후원
- 서울가톨릭종합복지협의회 임직원: 매월 약 78만원 정기후원
- 양천데이케어센터 임직원: 3만 6천원 후원
- 약수어린이집 교직원 및 학부모: 약 204만원 후원

✠ 감사합니다!

2017년 사순절저금통에 참여해주신 모든 본당 신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사순절저금통에는 총 112개의 본당에서 참여해주셔서 총 197,561,237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함께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테살로니카1서 1:2

2017.09.1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직원 일동

[2017년도 사순모금 참여본당]

가락 2 동성당	반포 4 동성당	신수동성당	중앙동성당
개봉동성당	발산성당	신월 1 동성당	창 5 동성당
개포동성당	방이성당	신월동성당	창동성당
거여동성당	방학동성당	신정 3 동성당	청담동성당
공릉동성당	방화 3 동성당	신정동성당	태릉성당
구로 1 성당	보문동성당	신천동성당	풍납동성당
구로 3 동성당	사당 5 동성당	아현동성당	한남동성당
구의동성당	사당동성당	암사동성당	행당동성당
구일동성당	삼성산성당	압구정성당	홍은 2 동성당
구파발사순	상봉동성당	양천성당	홍제동성당
길동성당	새남터성당	여의도성당	홍제동성당
길음동성당	서교동성당	역삼동성당	화곡 2 동성당
노량진성당	서대문성당	역촌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논현 2 동성당	서원동성당	연신내성당	회양동성당
대방동성당	서초동성당	연희동성당	후암동성당
도림성당	성내동성당	오금동성당	흑석동성당
도봉동성당	성북동성당	옥수동성당	
도봉산성당	성산동성당	왕십리성당	
동대문성당	성요셉성당	우면동성당	
동대문시장성당	세검정성당	우이동성당	
동작동성당	송천동성당	월곡동성당	
둔촌동성당	송파동성당	이태원성당	
마장동성당	수궁동성당	일원동성당	
명일동성당	수락산성당	자양 2 동성당	
목 3 동성당	수색성당	잠원동성당	
목 5 동성당	수서동성당	장안동성당	
목동성당	수유 1 동성당	종암동성당	
무실동성당	신도림동성당	중계동성당	
무악재성당	신림성모성당	중곡성당	
반포 1 동성당	신사동성베드로성당	중림동성당	

* 이외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본당 7곳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후원금과 물품지원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신 카리타스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깊게 뿌리내린 사랑의 나무가 되어 이 사회 곳곳에 아름다운 희망의 열매로 열릴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꾸뛰러미현정테크 / (주)노블레스미디언인터내셔널 / (주)뉴글즈컬 / (주)바로그레디티브 / (주)백년옥 / (주)비바다빈지 / (주)삼정개발산업 / (주)새한진공영력지 / (주)아이디포카스 / (주)알피코프 / (주)엔디케이 / (주)엔디케이 / (주)에이로엔 / (주)에이로엔 / (주)가톨릭회관 / (주)은성 / (주)이조프테크 / (주)청산인 / (주)철출아카데미 / (주)파워코글로벌 / (주)피피씨퍼펙트 / (주)한국허벌라이프 / (주)한신종합디자인 / (주)한수산업 / (주)홍진정 / 1898플러스 / 79번지오로 / BHC디자인 / CELINE / CHELSEA / DC마트 / Elijah Lee / GA*목조음 / jinf / LE PAIN 몽둥집 / Lee Won Hee Elaine / leewonheee Elaine / sunguhna / T&S세무회계사무소 / THE 실러임 / willoughby brendan michael / YUNAHARAM

[illegible]

나건호 / 나눔의 목상화 / 나동원 / 나명상 / 나보미 / 나삼균 / 나선희 / 나삼미 / 나수미 / 나순임 / 나승아 / 나연희 / 나유진 / 나유영 / 나재광 / 나준홍 / 나지영 / 나판균 / 나현영 / 나호정 / 나성대동성당 / 낙원순대 / 나지마당 / 남경민 / 남계숙 / 남궁유진 / 남다현 / 남덕진 / 남도옥 / 남동학 / 남명화 / 남명희 / 남미영 / 남민 / 남민채 / 남범우 / 남봉근 / 남산커피집 / 남삼길 / 남삼봉 / 남삼범 / 남민우 / 남삼범(남민우) / 남삼경(박익민) / 남상석 / 남순은과제서 / 남순자 / 남원부동초 / 남영자 / 남영정 / 남유진 / 남원후여당 / 남유나 / 남윤아 / 남윤혜 / 남민재 / 남재순 / 남현우 / 남해관 / 남현숙 / 남희정 / 내림순심계탕 / 노경선 / 노규형 / 노동식 / 노광진강당 / 노광진신사(장성규) / 노래라 / 노미경 / 노병철 / 노봉수 / 노봉길 / 노재현 / 노제호 / 노수윤 / 노근구 / 노연숙 / 노연희 / 노영자 / 노영길(매곡 제비파) / 노영자 / 노영성강원(천지소) / 노유리 / 노윤옥 / 노은경 / 노은영 / 노은자 / 노이경 / 노인숙 / 노일학 / 노정우 / 노정현 / 노정화 / 노주영 / 노진아 / 노진호 / 노장숙 / 노현미 / 노현아 / 노혜경 / 노혜원 / 노홍주 / 노희재 / 노희선 / 북석개방(신대방) / 노현2동성당 / 노현동성당 / 노현성모아리교회 / 노영갑(한빛문화사) / 노영화 / 노영희 / 노미야요기

라우영 / 라파엘라 / 레브드마마 / 레이디키트 / 레인보우샵 / 레쿠 / 로
데오악국 / 롬버스 / 롯데마트 / 루 / 루디야(보석) / 류기연 / 류동우 / 류
명숙 / 류승희 / 류연자 / 류영상 / 류정선 / 류정숙 / 류지성 / 류지연 / 류
지용 / 류지현 / 류현수 / 류호 / 리디아 / 리메디쉬 / 린나이사서대문 / 림스

바로본안경/바비송/바모/바무우/박가네유가네/박기원/박갑순/박갑희/박갑진/박갑순/박건우/박건호/박경/박경원/박경민/박경서/박경선/박경주/박경숙/박경숙/박경호/박경애/박경환/박경환/박경희/박계병/박광원/박광복/박규호/박극선/박극옥/박금자/박기순/박기용/박기운/박기형/박나미/박나윤/박남희/박노경/박노성/박단희/박대규/박대승/박대진/박대담/박대진/박동삼/박동주/박동순/박동옥/박동원/박동일/박동진/박동철/박동현/박두신/박관주/박학희/판대/박미리/아/박미리아(차동화)/박미타/박민희/박명미/박명진/박명숙/박명숙/아/박미리아(차동화)/박미타/박민희/박명미/박명진/박명숙/박명숙/

사당5동성당 / 사당동 홍어집 / 사당동성당 / 사랑의지킴이원 / 사리리아 / 사
채정 / 사회봉사팀 / 빛나라 / 삼골대방 / 산재가 / 산촌 / 삼상산성당 / 삼우정
월 / 화천교회 / 7개계동성당(미개원전) / 상계종합사회복지관 / 상동동성당 /
상지현 / 새남터성당 / 샌터공존중개 / 성경산 / 성경숙 / 성경원 / 성경진 / 성경
희 / 사랑성 / 서교동성당 / 서귀틀 / 서규원 / 서금자 / 서갑설 / 서대문성당 / 서
대문아구름 / 서두원 / 서란 / 서리란 / 서명숙 / 서명애 / 서명화 / 서명희 / 서미
나 / 서민석 / 서민영 / 서민철 / 서민호 / 서복석 / 서병기 / 서복진 / 서원자매서
당 / 서지숙 / 서지성 / 서지원 / 서재운 / 서초서 / 서승범 / 서승연 / 서승원 / 서
이냐스 / 서아현 / 서애라 / 서영숙 / 서영주 / 서예슬 / 서우정 / 서울가톨릭사회
복 / 서대문대학교병원 / 서울무명사 / 서태배나루초 / 서울왕당나루 / 서울주보 / 서
울피혁 / 서원동본당 / 서원아 / 서유나 / 서윤석 / 서윤설 / 서은석 / 서은숙 / 서
은정 / 서은희 / 서일출성당 / 서일영 / 서자 / 서재선 / 서재환 / 서재원 / 서재호 / 서
정원 / 서정성 / 서정순 / 서정원 / 서정자 / 서정희 / 서주연 / 서지민 / 서지수
/ 서지은 / 서지희 / 서진 / 서진국 / 서진아 / 서초3단지어린이집 / 서초동성당 / 서
초성능노인요양원 / 서춘자 / 서용연 / 서현수 / 서현진 / 서형석 / 서호석
서호성 / 서효원 / 서홍현 / 서희원 / 서희정 / 서병남 / 서예림 / 서정광 / 서혜남 /
서혜정 / 서덕남 / 서수선 / 서우연 / 서우민진 / 서우선 / 서우주 / 서진상화 / 선
현경 / 선희정 / 설설 / 설악주머당 / 설옥래 / 설진록 / 서정가장대 / سنگ간해 / 성
경순 / 성규진 / 성금목재 / 성남동성당 / 성대골 / 성대희 / 성명아 / 성모님 / 성
모자선회 / 성미현 / 성민재 / 성백련 / 성봉순 / 성부유 / 성복동성당 / 성산동성
당 / 성향자 / 성현진 / 성요셉성당 / 성우연 / 성문호 / 성은경 / 성영희 / 성주란
/ 성외보호작업장 / 성지호 / 성진영 / 성진희(분홍초) / 성창수 / 성명림 / 성현
/ 성외보호작업장 / 성지호 / 성진영 / 성진희(분홍초) / 성창수 / 성명림 / 성현

아날로그라이프 / 아녜스 / 아리수승수지사랑 / 아모레파시픽 / 아베베케이즈 /
아오수디 / 아이러비퍼블 / 아지트 당구장 / 아틀리에스 / 아현동성당 / 안경단
아 / 안영진 / 안영준 / 안광민 / 안국진 / 안길영 / 안대호 / 안나루 / 안덕명 / 안
덕인 / 안테레사 / 안드레아 / 안민숙 / 안명옥 / 안미숙 / 안미영 / 안민경 / 안범
찬 / 안영규 / 안병일 / 안병호 / 안상현 / 안서정 / 안석지 / 안선 / 안성민 / 안성
수 / 안성식 / 안성진 / 안세정 / 안세진 / 안셀모 / 안소현 / 안수연 / 안수정 / 안
순옥 / 안수희 / 안정찬 / 안정화 / 안숙희 / 안시원 / 안소현 / 안연옥 / 안영기 /
안영숙 / 안영익 / 안영자 / 안윤주 / 안인숙 / 안재호 / 안재홍 / 안정란 (차광옥) /
안정세 / 안정준 / 안정진 / 안정희 / 안젤라 / 안종용 / 안종훈 / 안준희 / 안지영 /
안지은 / 안창희 / 안태국 / 안학정 / 안한진 / 안행덕 / 안혁진 / 안형숙 / 안형준
안혜진 / 안혜원 (한태우안토니오) / 안혜자 / 안혜진 / 안호 / 안홍순 / 안화순
안희 / 안희숙 / 알레르마 / 알앤제이콜렉션 / 암사동성당 / 암구정1동성당 / 암
구정동성당 / 암구정칠곡구수(김숙희) / 악순악곡 / 악수아티비즈 / 양근 / 양기경
/ 양승준 / 양영숙 / 양영희 / 양미 / 양미숙 / 양미연 / 양성식 / 양성윤 / 양성진
/ 양성진 / 양순옥 / 양승만 / 양승서 / 양승원 / 양승일 / 양승현 / 양예숙 / 양영진
/ 양영진 / 양영은 / 양영진 / 양윤지 / 양은숙 / 양인숙 / 양인숙 / 양일모 / 양일형 /
양재민 / 양재원 / 양재일 / 양재혁 / 양진미 / 양정민 / 양정순 / 양정임 / 양정훈
/ 양정희 / 양준구 / 양준명 / 양지보신랑 / 양지선 / 양지영 / 양지현(골롬바) / 양
한숙 / 양춘아 / 양영희 / 양한글 / 양해경 / 양한석 / 양해경 / 양혜명 / 양호숙 /
여미수 / 여운석 / 여운화 / 여은정 / 여애경 / 여영옥 / 여정자 / 여관용 / 여미라 /
여민석 / 여부영 / 여은선 / 여숙경 / 여은식 / 여임례 / 여재용 / 여현철 / 여혜자
/ 여호식 / 예스예스비(주) / 예코퀘텐티 / 예프북(Ebook) / 여경상 / 여두근
/ 여러분족정식 261호 / 여미영 / 여미수 / 여미정꽃마을 / 여선 / 여윤주 / 여은구
/ 여미비 / 여은정 / 여의도성당 / 여인숙 / 여진원 / 여제경 / 여현주 / 여말 달한마
리 / 여삼동성당 / 여춘골 민속주점 / 여춘동본당 / 연 / 연순철 / 연녀사생방 / 연
제숙 / 연전상회 / 연희동성당 / 연희아티렉스인영 / 열아열한째이웃 / 열여덟번
째이웃 / 열경숙 / 열경훈 / 열리동성당 / 열성목 / 열성목 / 열시춘 / 열무찬 / 열
정찬 / 열정훈 / 열매두루 / 열현빈 / 열영동성당 / 열영진전 / 열영소트트웨어(주)
/ 열영호텔 / 열매미음식 / 열수화식소식 / 열혜진 / 오건희 / 오건목 / 오경연 /
오경삼 / 오귀선 / 오금동성당 / 오남주 / 오대일 / 오대희 / 오데레사 / 오동근
/ 오동원 / 오명표 / 오명숙 / 오명순 / 오명주 / 오미경 / 오미선 / 오미숙 / 오민진
/ 오민희 / 오병철 / 오부연 / 오상정 / 오서훈 / 오석순 / 오상자 / 오세훈 / 오수석
/ 오숙희 / 오숙희 / 오수연 / 오승원 / 오승원 / 오승희 / 오승희 / 오세훈 / 오세성
/ 오예슬 / 오옥희 / 오요셉 / 오유경 / 오유진 / 오윤선 / 오유하 / 오은희 / 오의섭
/ 오인화 / 오이클루스 / 오재숙 / 오재원 / 오정숙 / 오정임 / 오정혜 / 오정환 / 오
종혁 / 오주경 / 오준환 / 오지선 / 오지영 / 오진선 / 오창석 / 오창선 / 오창성 /
오창지 / 오필재 / 오필재 / 오하라 / 오하라 / 오한샘 / 오해진 / 오현수현우 / 오현인 / 오
형주 / 오형자 / 오혜선(주승태박사시리요) / 오혜정 / 오혜진 / 오유선 / 오화진

이음옥/이윤진/이윤종/이유환/이윤희/이우선/이우성/이우연/이우영,
이우열/이우주/이우재/이우철/이우진/이웃/이원경/이원하/이원배/
이원형/이원일/이원우/이원자/이원준/이원희/이원현/이아나/이리
이유배/이유상/이유선/이유정/이유진/이유정/이윤경/이윤선/이윤수/
이윤우(신혜찬)/이윤자/이윤정/이훈희/이은경/이은미/이은석/이은숙/
이은하/이은별/이은정/이은진/이은자/이은정/이은제/이은주/이은지/
이은호/이은혜/이은화/이은희/이은익/이은구/이은미/이은숙/이은순/
이언영/이언욱/이언우/이자라/이자란/이자근/이자현/이안희/이말사/
이말용/이말형/이말삼/이자연/이자혜/이자현/이자/이자성/이자향/
이자주/이자경/이자관(최한진)/이자만/이자복/이자생/이자선/이자성/
이자선/이자정/이자록/이자현/이재은/이재의/이자주/이자진/이자배/
이재민/이재홍/이재희(윤석진 안도현)/이재창/이재중/이재진/이재
이정란/이정례/이정림/이정민/이정봉/이장사/이창서/이창선/이창설
이창수/이창숙/이창선/이창식/이창하/이정연/이정연/이정국/이정원
이정은/이정미/이정자/이정진/이정희/이정현/이정호/이정화/이정환
이정훈/이정희/이정우/이재동/이재복/이재만/이재홍/이흥권/이흥
이충무/이충민/이충범/이충분/이충선/이충섭/이충우/이충매/이충
이충우/이충원/이충은/이충일/이충임/이충찬/이충현/이주경/이주리
이주영/이주현/이주운/이주하/이주현/이주영 이자혜/이주호/이주철/
이주희/이준규/이준하/이준승/이준우/이준우/이준희/이준명/이준환/
이준희/이준상/이준선/이연진/이지민/이지영/이지용/이지원/이지윤/
이지울/이지은/이지현/이자혜/이자후/이진경/이진비/이진서/이진석/
이진수/이진숙/이진상/이자라/이진영/이진을/이진희/이찬미/이찬희/
이찬걸/이찬민/이창석/이창성/이창숙/이창선/이창ыл/이창용/이창
이창형/이창형(이상 에쓰스)/이창희/이채은/이채정/이헌희/이철우/
이철우/이철희/이효은/이추성/이춘경/이춘배/이춘식/이춘영(정훈)
이자/이춘호/이춘하/이춘희/이웅경/이충길/이충은/이충현/이지훈/
이카타야마/이탈리아푸라피드르니/이태라안경희/이태순/이태연/이태
이태성당/이태오/이태원/이택수/이타미/이필선/이하늘/이학수/이
이חק재/이혁인/이한기/이현우/이한돈도트루스트/이한진/이하일/이한
이해성/이해연/이해영/이향순/이헌주/이혁렬/이혁준/이헌강/이헌규
이헌균/이헌미/이헌수/이현숙/이현순/이헌정/이해준/이헌준/이헌진
이헌호/이헌하/이헌훈/이형숙/이형준/이혜경/이혜련/이혜리/이혜
(최익석 바오로)/이혜미/이혜민/이혜문/이혜숙/이혜여/이혜정/이혜
이혜재/이혜정/이혜진/이호석/이호주/이홍/이홍교/이홍권/이홍규/
이홍식/이홍선/이화연/이화정/이화주/이화희(부상형)/이호경/이호
이호상/이호순/이호영/이효은/이효정/이효주/이원/이희배/이희숙/
이희숙/이희옥/이희용/이희중/이건환/이건희/이완석/이완해물/이
은희/이현동보단/이현돌이/이현동보단/이현주현/이거정/이금옥/이경
은/이경혜/이경화/이경희/이계수/이계영/이광재/이규덕/이금순/이
기간/이기영/이난비/이남선/임대재/임대현/임규원/임명희/임미경(김
영선 요셉)/임미현/임민정/임민지/임병구/임병찬/임부순/임성문/임성
현/임석치/임시현/임신옥/임성경/임성수/임성상/임성우/임성희/임성하(박
희라 아리아)/임세영/임세희/임소영/임소정(전윤노콜라오)/임수주/
임숙/임숙희/임순희/임순진/임순륜/임승택/임사규/임양순/임여정/
임예슬/임영수/임영숙/임영록/임영진/임영희/임영희(김판민)/
임애출/임용성/임원정/임원일/임위희/임유진/임유진/임영희/임윤자/
임은아/임은영/임은진/임영숙/임정수/임요순/임재규/임재현/임재원/
임재진/임정갑/임정녀/임정수/임정실/임정연/임정은/임정호/임정희/
임정국/임정환/임정환/임희정/임지선/임지연/임지현/임진우/임정선/
임철원/임충환/임태빈/임태선/임태성/임태순/임혁진/임현숙/임한아/
임현주/임현준/임현빈/임현경/임현연/임효순/임하남/임하초/임하
임하초

자

자장2동성당 / 적은정성 / 집삼3동성당 / 집살7동성당 / 집현성당 / 정경수 / 장경신 / 장경일 / 장경일 / 장경희 / 장금주 / 장홍화 / 장두석 / 장만규 / 장달순
장명호 / 장명숙 / 장명자 / 장영한 / 장영희 / 장문경 / 장미령 / 장미림 / 장미정
육점 / 장민정 / 장병수 / 장병옥 / 장복남 / 장복림 / 장삼록 / 장상식 / 장승훈
장선영 / 장선화 / 장성희(임갑표) / 장승모 / 장승연 / 장수영 / 장수정 / 장순영
장순화 / 장시영 / 장인동성당 / 장재리 / 장강수 / 장예리나 / 장유선 / 장진숙
장지우 / 장영준 / 장안희(이상진) / 장외선 / 장용 / 장용준 / 장원수 / 장유진
장은상 / 장완배림 / 장원식 / 장원영 / 장원홍 / 장위동성당 / 장위특별기
기 / 장유덕부 / 장유리 / 장유진 / 장윤민 / 장윤일 / 장윤정 / 장윤희 / 장은결
장은서 / 장은정 / 장은지 / 장진숙 / 장진진 / 장진혜 / 장일선 / 장임순 / 장재숙
/ 장재진 / 장재현 / 장창익 / 장영준 / 장영제 / 장지연 / 장지영 / 장홍 / 장지은
장직현 / 장진옥 / 장침오 / 장활진 / 장초홍 / 장초임 / 장타효림 / 장하연 / 장하
윤 / 장학급 / 장한선 / 장혁주 / 장현국 / 장현숙 / 장한아 / 장한진 / 장철순 / 장
형순 / 장혜미 / 장혜주 / 장혜민 / 장혜림 / 장혜진 / 장화정 / 장휘부 / 장희송 / 장
희은 / 장희정 / 장희영 / 장재민 / 장재빈이 오일홍재단 / 저스트프로젝트 / 전
경비 / 전경아 / 전주호 / 전주길 / 전주천 / 전주근 / 전주진 / 전대니과기/전
대영 / 전대주 / 전데레사 / 전란옥 / 전명숙(최상근) / 전영애 / 전영은 / 전영희
/ 전영희 / 전미 / 전민주 / 전병돈 / 전부덕 / 전봉수 / 전삼욱 / 전선희 / 전성민
/ 전생배 / 전성수 / 전성순 / 전성은 / 전소진 / 전주성 / 전주순 / 전주성 / 전주진
(오영진) / 전숙자 / 전수선 / 전수선 / 전영희 / 전영자 / 전여옥 / 전영연 / 전영삼
/ 전영숙 / 전영진 / 전영실 / 전영심 / 전영옥 / 전영훈 / 전윤자 / 전윤휘진 / 전윤희
/ 전주수 / 전유리 / 전유정 / 전유현 / 전은미 / 전은주 / 전이춘 / 전자연 / 전정림
/ 전정숙 / 전귀중·나눔 / 전준호 / 전용운 / 전희선 / 전희연 / 전진경 / 전진미 / 전
진숙 / 전경순 / 전준희 / 전준은 / 전해영 / 전호 / 전홍석 / 전희정 / 전강홍 / 전
경남 / 전경숙 / 전경애 / 경민인 / 경희희 / 경고조 / 정려래 / 정림영준발 / 정

정/정화/정공/정국진/정관섭/정귀옥/정규석/정규필/정규호/정
균형/정국도/정금래/정금자/정기봉/정기성/정기영/정기호/정남숙/정
관현/정다은/정다인/정대휘/정대원/정택적/정택희/정토상/정토진/정토기
정동래/정동욱/정동원/정동진/정동수진상/정동태/정도자/정령4동민
천시호/정말래/정맹신/정명국/정명순/정명식/정명자/정명화/정명훈
정무용/정문석/정문숙/정민경/정민숙/정미자/정미정/정미진/정미현/정
정공진/정진구/정진배/정진환/정진호/정진희/정병선/정병일/정분인/정
성진/정상재/정상남/정상화/정삼자/정선정/정선우/정선일/정선필/정선
정선희/정성래/정성자/정세라/정세진/정수경/정수연/정수용/정수진/정
숙필/정순녀/정순민/정순이/정순영/정순영(정종식)/정순옥/정순자/정
순재/정승옥/정승용/정승일/정승수/정영관/정영순/정영순/정영상/정영
정장주/정여경/정연옥/정영자/정영진/정영경/정영도/정영라비과/정
영남/정영순/정영애/정영옥/정영자/정영태/정영아/정영애/정영조/정
정영훈/정영희/정옥희/정용선/정용수/정용애/정용원/정우내술집/정
우진/정우진/정운용/정원경/정원상자/정원영/정원진/정원필/정유경
정유진/정유진(신영화바로)/정유자/정유진/정연/정윤미/정윤옥/정
윤재/정윤경/정은숙(함윤정)/정은진/정은성/정은정/정은주/정은희/정
의식/정이나/정익근/정인경/정인경(강서영 바로니카)/정인경(강희연 요
한)/정인상/정인선/정인성/정인숙/정인자/정인찬진/정일화/정재근/정
재식/정재연/정재필/정재은/정재철/정재환/정정자/정정자/정정형
외과/정정훈/정정미/정정은/정정국/정정기/정정순/정정자/정주영/정
준덕/정준석/정준자/정준희/정지현/정지현/정지훈/정진구/정진국/정
진석/정진석/정진우/정진철/정진희/정진영/정찬익/정찬중/정채용/정
철철/정철현/정철조/정복록/정준옥/정준호/정중자/정지과/정지연/정
지연/정지호/정지성/정태근/정태국/정태진/정태환/정태훈/정태희/정
정하인/정하진/정학숙/정학정/정학중/정학진/정현민/정현민/정현식/정
정해운/정해진/정해준/정형경/정현석/정희/정현수/정현숙/정현주/정
현철/정현태/정형애/정혜경/정혜수/정혜영/정혜원(이다니힐)/정혜
정/정효경/정효연/정효정/정효진/정효희/정효진/정효호/정효소/정
효진/정희경/정희선/정희정/정희정/정희동상당/제이스타일미용실/제
엘비비루/제중연약국/제현진/조건현/조경득/조경민/조영미/조영기/조
광학/조광현/조광희/조광희/조권주/조규만/조금숙/조금순/조금자/조
금경/조기민(윤복기)/조이은/조노영/조남경/조남용/조명환/조명환/조
노진/조동석/조동순/조동준/조명진/조명진/조명자/조명중/조문영/조
모경/조미경/조미숙/조미영/조미정/조미정/조미희/조미영/조미자/조
민호/조민희/조병순/조병용/조병우/조보길/조상훈(세비로/조선영/조
선희/조선희(김필라바로)/조성숙/조성순/조성용/조성옥/조성필/조
성윤/조성민/조성자/조성주/조성지/조성진/조성필/조성현/조성훈/조
세원/조소연/조소자/조소현/조소진/조소옥/조소주/조소희/조소식/조
소준옥/조순자/조순희/조소연/조소화/조신자/조아라/조애경/조애원/조
양경/조양순/조엘리넷/조연경/조영관/조영미/조예림/조옥미/조옥희/조
은희/조은희/조은석/조용국/조용석/조용수/조용수/조용수/조용수라미힐/조
우성/조현영/조원준/조유래/조유숙/조유순/조유진/조윤정/조은근/조
은주/조은별/조은미/조은연/조은주/조은주/조은희/조이폴아트스/조
오진구/조인규/조인숙/조인준/조인형/조일현/조장호/조재승/조재주/조
재범/조재희/조재미/조정미/조정숙/조정애/조정옥/조정자/조정주/조정호/조
정화/조정희/조제호/조종호/조준호/조준희/조진구/조진국/조진숙/조
진선/조진희/조지희/조창연/조춘수/조태식/조태원/조태훈/조태훈/조현
조혜라나/조혁진/조현경/조현규/조현옥/조현주/조현지/조현화/조형
섭/조혜라/조혜영/조혜정/조효민/조희숙/조희영/조희윤/조희재/종
암동성당/종암동연약국/조혜경/주대병원트위크/주리블랜드/주
스키링/주가네/주날래기/주동경/주영화/주미다/주부규/주봉순/주
상현/주선영/주식회사복천/주식회사영성/주식회사영진/주식회사이물
리움/주식회사자한한/주신경/주신혜/주일권/주정미/주재근/주진술/주
준찬/주해숙/주현돈/주현복/주현수/주현숙/주현우/주현정/주혜련/주
화순/주희관/주혜복/주혜동성당/주혜동성당/주혜동성당/즐거움/주
지/주지혜아연관/지도희/지영수/지민호/지민진/지서진/지서근/지성
규/지상자/지영숙/지효의목욕/지영애/지영애/지은정/지정훈/지진숙/지
진재/지진수/지나오수진/지현옥/지현영/지혜정/지은경/지은숙/지
재복/지정남/지주/지주연래과/지주영/지현정

차대식 / 차명희 / 차미경 / 차미선 / 차민영 / 차소정 / 차수경 / 차영민 / 차용국
/ 차원철 / 차유진 / 차은희 / 차현덕 / 차현미 / 차재경 / 차동승달 / 차동성달 /
차갑수 / 차경자 / 차광우 / 차보영 / 차사범 / 차선욱 / 차세호 / 차수훈 / 차שמין
/ 차점숙 / 차정호 / 차진 / 차한구 / 차현주 / 차형주 / 차혜연 / 차태래 / 천사 / 천
사 / 천성민 / 천세영 / 천연문 / 천유진 / 천일숙 / 천재록 / 천지연(양기숙) / 천
지언(강희정) / 천진희 / 천도홍당 / 천호성 / 천화규 / 천물절 / 천성순 / 천성수
춘 / 천계자(의왕실) / 천금삼상 / 천담성삼상 / 천령리삼상 / 천창삼현의
회 / 천파무성당 / 최가평 / 최강문 / 최경숙 / 최경아 / 최경오 / 최계현 / 최고운
출 / 최광보 / 최남식 / 최광택 / 최근식 / 최근 / 최근주 / 최기정 / 최길 / 최녀
침 / 최남서 / 최단남 / 최대진 / 최적자 / 최도길 / 최동후 / 최동일 / 최두혁 /
최득문 / 최득실 / 최로사 / 최리자 / 최리수 / 최애영 / 최영희 / 최영희 / 최몽룡
/ 최문정 / 최미나 / 최미락 / 최미랑 / 최미숙 / 최미심 / 최미영 / 최민 / 최민정 /
최민애 / 최매관 / 최명수 / 최명국 / 최병기 / 최범은 / 최보인 / 최복순 / 최봉환 /
최상균 / 최상원 / 최서영 / 최석환 / 최선애 / 최선원 / 최선영 / 최선정(CHOISON) / 최선
윤 / 최사정 / 최상진 / 최신옥 / 최신옥 / 최성원 / 최성자 / 최성정 / 최성훈 / 최
성준

최한 / 최성희 / 최수진 / 최숙희 / 최순석 / 최승민 / 최순자 / 최순주 / 최순형 /
 최현 / 최영명 / 최정철 / 최승현 / 최승호 / 최승문 / 최만숙 / 최영규 / 최양원 /
 최연옥 / 최영란 / 최영미 / 최경선 / 최영숙 / 최영국 / 최영희 / 최영인 / 최경자
 최영진 / 최영철 / 최영지 / 최유준 / 최영준 / 최옥국 / 최옥순 / 최옥희 / 최유진
 최용순 / 최용신 / 최우성 / 최우연(장혜경 비비안나) / 최홍식 / 최현걸 / 최현영
 최현정 / 최현학 / 최유경 / 최유미 / 최유성 / 최유정 / 최윤동 / 최은석 /
 최은선 / 최은실 / 최유정 / 최진정 / 최진기 / 최운호 / 최원자 / 최은근 /
 최영림 / 최영실 / 최은진 / 최은희 / 최은진 / 최익상 / 최희남 / 최희관 / 최희춘
 최인왕 / 최인호 / 최자은 / 최재경 / 최재원 / 최재현 / 최재형 / 최재륜 / 최점순
 최경란 / 최경목 / 최경선 / 최정수 / 최정숙 / 최정순 / 최정심 / 최경아미음실 /
 최정에 / 최정은 / 최정중 / 최태원 / 최정호 / 최정희 / 최재필 / 최종선 /
 최충열 / 최종산 / 최종대 / 최종호 / 최준화 / 최준규 / 최치원 / 최지영
 최지환 / 최지규(최세베르도) / 최지영 / 최진선 / 최진숙 / 최진주 / 최창기 /
 최창진 / 최창목 / 최창학 / 최창훈 / 최절용 / 최절원 / 최경애 / 최준규 / 최치환
 최하순 / 최한솔 / 최한희 / 최합표 / 최현준 / 최현 / 최현경 / 최현란 / 최현석 /
 최현석 / 최현진 / 최희원 / 최형석 / 최형선 / 최혜경 / 최예란 / 최예민 / 최예정 /
 최효영 / 최하수 / 최하정 / 최완석 / 최한주 / 최효정 / 최희영 / 최희원 / 최화진 /
 최희정 / 주순의 / 주경애

국·표

카메리야참당나 / 카페리브레 / 코릴범비 / 코바코초밤 / 코번 / 쿠넨 / 쿤진 / 쿠
쿠트브랑크 / 쿠르세탁스 / 탁카리 / 탁삭센 / 탁탁지 / 탁탈아성터리 / 태생당
/ 태강약국 / 테라스크린 / 테오필로 / 통상검구미 6,900원 / 트레이드번 / 틸
리 / 티라바게트 / 파워크린 / 감강요양 / 팡혜진 / 팡화숙 / 펄스캐셀화학과 / 편
용준 / 팡화자카사 / 팡화약국 / 포계촌달한마리 / 포배미 / 포동충남 / 표영애
(상호) / 표미자 / 표유순 / 피카순 / 푸른본 / 푸름이 / 푸름동생 / 푸름칼비 / 푸른
표형 / 푸름해장국 / 플레미어 / 피카순 / 피카스콜 / 피정자 / 핑크칼비

[illegible]

봉사를 통해 전교할 수 있는 기회 갖게 돼

가톨릭정보문화센터 중국어 통역봉사 손영일 사도요한

가톨릭정보문화센터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한 이후 국내외에서 한국 천주교 성지와 명동성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동성당을 방문하는 국내외 신자 및 관광객에게 가톨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교구청 신관 지하층 '1898' 내에 위치한 센터에서는 한국천주교회와 관련한 정보제공 및 가톨릭 성지순례, 관광 안내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70여명의 통역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중국어 통역 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손영일 사도요한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봉사를 통해
‘전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Q1

통역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중국어를 전공하고 중화권에서 20여 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퇴직 후 나만의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서울주보에 난 ‘통역봉사자 모집’ 안내문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통역봉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금, 토, 일 3일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3시간씩 교대로 주1회, 월1회 등 자신의 여건에 맞게 봉사시간과 날짜를 선택해 함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활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담당하는 언어가 표시된 이름표를 달고 2인1조로 나눠 명동성당 내에서 언어권별로 정리되어 있는 교본 내용을 토대로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성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Q3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2015년 4월 봉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 돼 휠체어를 타고 명동성당을 찾아 온 홍콩인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명동성당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고 “덕분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받았는데 그 진심이 가슴에 와 닿아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한 번은 중국 산둥지방에서 온 중국인 비신자 방문객을 만난 일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을 묻던 이 방문객은 “가톨릭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 설명을 통해 궁금증이 다소 해소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봉사를 통해 ‘전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Q4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통역봉사단이 만들어진지 벌써 3년이 되었고, 그 동안 명동 성당을 찾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교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통역 봉사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중화권 방문객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해 중국어 통역봉사자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국어 봉사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합니다. ❀



교육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에서는 2017년에도 하느님 사랑 실천인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가치있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신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본교육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앙인으로서 자원봉사 기본정신과 바람직한 역할 및 자세를 제시하고,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일시 2017.3.11일(토), 6.10(토)
9.9(토), 11.18(토)
- 내용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자원봉사의 의미 및 자세, 활동영역 안내
- 대상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분,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기본교육이 필요한 분
- 교육비 1인당 5천원
- 준비물 증명사진 1매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426·1호

자원봉사 위탁교육(10인 이상 시, 신청 가능)

본당, 사회복지시설 등의 자원봉사 기본교육 요청 시,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해 드립니다. 자세한 일정 및 시간은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가능하니, 사전에 연락주세요.

- 일정 논의 가능
- 시간 1시간~1시간 30분
(단체에 따라 협의 가능)
- 대상 본당, 본회 직영 및 수탁, 등록시설 자원봉사자
- 교육비 1인당 5천원
- 준비물 증명사진 1매

자원봉사 재교육(10인 이상 단체 가능)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 갈등을 해결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정신과 동기를 재강화함으로써 보다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진행합니다.

- 일정 논의 가능
- 시간 1시간~1시간 30분
(단체에 따라 협의 가능)
- 내용 가톨릭자원봉사 정체성 인식
자원봉사 활동평가 및 개선방향 도출 등
(단체의 활동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비 1인당 5천원

본당 자원봉사 리더교육

본당 내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 봉사자들이 역할을 인식하고, 본당 봉사조직의 리더로서 역량을 길러 본당 내 활동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 일정 추후 홈페이지 통해 공지 예정



신청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www.escvc.or.kr)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활동내용, 확인서 발급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원봉사 연계와 신청을 온라인으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가입 → 봉사활동 신청 → 봉사실적 입력(등록센터) → 봉사실적 관리 및 확인증 발급)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 등록요원 교육

본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본당에 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서 소속 자원봉사자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등록요원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본 교육으로 시스템 전반적인 현황 및 시스템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다루는 업무이므로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 대표자(주임신부님)의 추천을 받은 분에 한해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시 10월 17일(화)
12월 5일(화)
- 장소 교구청 별관 전산교육실
- 대상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시설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자원봉사 실무담당자
본당의 경우, 사무장 또는 단체장, 주임신부님 추천에 의한 본당 자원봉사 관리자
- 신청 02-727-2248(사전접수 필)
교육진행시, 시설 및 본당에 공문 발송
- 교육비 1인당 5천원

DO CAT과 함께하는 사회교리

일러두기

<DO CAT>은 레오 13세 교황 이후부터 중요한 문헌에서 발전된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를 쉽고 간략하게 옮겨 놓은 책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교회의 중요한 문헌들을 직접 읽으며,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적극 투신하라고 자주 요구했습니다.

<DO CAT>이라는 제목에는 “행동하는 것”이라는 뜻(TO DO)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대답해 줍니다. 이 책은 복음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이어서 주변 환경을, 마지막으로는 세상 전체를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사회복지, 즉 카리타스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추천하신 가톨릭사회교리서 <DO CAT>을 통해 하느님 사랑실천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움 속에서 희망과 삶의 가치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기를...



<DO CAT>은
가톨릭출판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된 세계, 하나된 인류: 국제공동체

Q. 가난이란 무엇인가요?

전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맥나마라가 내린 통상적인 정의에 따르면 일정한 미국 달러 액수 이하를 하루 수입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액수는 세계은행에 따르면 하루에 1.25달러, 한화로는 약 1400원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7.6%인 12억 9천만명이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제 개발협회의 통계에서는 일인당 국민소득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한 나라의 칼로리섭취, 통상적인 평균수명, 어린이 사망률, 출생 비율 등도 함께 평가합니다.

이에 비해 상대적인 가난의 개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인간의 삶의 상황 혹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복지 상태와 관련하여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자원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사람이 월마다 마음대로 쓰는 비용이 국민 평균 수입의 60% 이하인 사람은 상대적 가난에 속한다고 합니다.

배고픔 없는 미래를 위한 십계명

(오스트리아 카리타스)

1.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협력하라.
2. 이웃의 양식을 투기로 잃어버리지 말라.
3. 굶주린 이들이 먹는 데 필요한 것을 저장하지 말라.
4. 땅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후 변화를 저지하여 자신과 자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상에서 행복하게 해라.
5. 자신의 삶이 타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라.
6. 이웃의 재산과 땅을 욕심내지 말라.
7. 농업활동을 통해 굶주린 사람을 줄이고 늘게 하지 말라.
8. 부패한 정부에 맞서라.
9. 폭력적인 대립과 전쟁을 저지하는데 도움을 주어라.
10. 개발도상국 원조와 함께 굶주림을 저지하라.



Q. 이 세상의 자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용해야 하나요?

가톨릭 사회교리에서는 '인류가족의 일치'와 이와 관계가 있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하느님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상의 자원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낭비하며 사치스럽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상의 식량은 그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Q. 가난한 사람들을 왜 특별히 주목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특히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마음을 기울이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를 형성하는데, 그리고 그들 자신의 생활 조건을 형성하는데 가장 미미한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는 그들의 편에 서서 불의와 차별과 억압 등을 없애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사회교리의 의미에서 정의는 모든 인간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중심이 되는 삶의 시련에 참여하도록 요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투신이 위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복잡하게 서로 종속되어 있고 또한 날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는 상황에 직면하여 가난의 원인들을 찾고 그것을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는 구체적인 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우)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Tel. 02-776-1314



목소리

각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V표를 해주세요.

1. <나눔>의 글씨체나 글씨 크기가 읽기 편하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2. <나눔>의 표지가 마음에 든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3. <나눔>의 발행주기(현재 분기별 계간 발행)가 적절하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4. 이번 호 <나눔>에서 가장 유익했던 코너는?

()

5. <나눔>에서 꼭 다뤄줬으면 하는 아이템 및 기타 의견을 주신다면?

()

6. 귀하의 연령은?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해당 설문은 <나눔>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함입니다. 보내주신 좋은 의견을 모아 소식지에 반영하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려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7 5 3 7

www.cartassseoul.or.kr/bokji

Tel. 02-776-1314 Fax. 02-754-5636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 □ □ □ □

꼭 지켜주세요



이 문건을

자동이체(CMS) 후원신청서

성명(세레명)	
휴대폰	유선전화
주소	
소식지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 <input type="checkbox"/> 수령안함	
■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신청인은 예금주와 동일해야 합니다.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은행명	출금이체일 선택 매월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0일
계좌번호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예금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출금통장에는 매월 약정일에 인출기관명이 「서울카리타스」로 표시됩니다.

예금주 (서명)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본 회 회원가입,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각종 사업정보 제공, 연말정산소득공제 등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인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명례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 등록/해지 사실통지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정보,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수집에 동의하여야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안함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을 통한 기부내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을 통해서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없으며, 본회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기부금영수증을 별도 첨부하여 연말정산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주민등록번호 - ☐ 동의안함

위와 같은 내용과 다름없이 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예금주 (서명)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제와 직원들은 매월 후원자분을 위한 미사 및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 연말정산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